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소*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7. 23(토) ~ 8. 2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 대학은 공항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말라본 지역에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상업시설이 없어서 학교 주위가 조용한 편입니다. 학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있어 필리핀 친구를 만들기 좋은 환경입니다.
수업	수업은 1 : 1수업 3시간, BGC(대그룹 수업) 3시간, SGC(소그룹 수업)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수업은 거의 speaking 수업이 위주이고 BGC은 토익 위주의 수업으로 이뤄집니다. 처음 레벨 테스트를 통해 반이 나누며 배정된 학생들과 1:1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을 같이 듣습니다. 과제는 적당히 있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희가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수업 내용은 거의 반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ctivity	Activity를 참여하지 않아서 자세한 건 모릅니다. 저희는 팍상한 폭포, 따가이따이, 민도르섬이 있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저희가 갔었을 때가 필리핀의 우기일 때입니다. 비가 한 번에 쏟아지다가 그치고를 반복합니다. 맑은 날씨였다가도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이 좋고 신발은 샌들 위주로 신는 게 좋습니다.
안전	호스텔, 학교, 편의점, 음식점 등 어디를 가든 경찰과 가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 숙소는 총 3개의동이 있고 각 층마다 정수기가 있고 호스텔 중간에 공용 공간과 헬스장이 있습니다. 10시까지의 통금 시간이 있고 10시부터는 점호를 합니다. 호스텔 시설은 다 좋았지만 하나 아쉬운 부분은 제가 쓰던 방이 Wifi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했었습니다.
식사	학교식당(<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checked=""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type="radio"/>)기타(<input type="radio"/>) 호스텔에서 나오는 밥은 한식당 위주로 나오며 진짜 맛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갔었는데 간단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리핀 식당은 짬 편입니다.
교통	호스텔과 학교는 걸어서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통학 하였습니다. 필리핀의 시내 교통은 토요일은 트래픽이 제일 심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주말에는 거의 차안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41,350	출국 전 사전 납부
용돈	500,000	기념품, 식비, 대중교통비 등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영어를 배우러 가는 곳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영어는 알고 가야합니다. 문법까지는 아니어도 단어를 많이 알면 좀 더 수월하게 수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기 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달동안 타지에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항상 영어를 막연하게 하고 싶다고만 하고 따로 노력은 안 했었습니다. 근데 학교 홈페이지를 보다가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고 기회가 돼서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떠나보는 해외이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단지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지할 수 있었고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보다는 말문도 많이 트이고 기본적인 영어는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어학연수 기간 동안 있었던 Activity를 참여하지 않았던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팍상한 폭포, 따가이따이, 민도르섬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3주차에 민도르섬만 참여하기로 했었고 1주차,2주차에 갔던 폭포와 따가이따이는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날씨가 좋지 않아 민도르 섬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Activity는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ctivity를 참여하지 않아서 한달 용돈은 500,000으로 충분했지만 Activity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2주차 - 마닐라 투어 (Rizal park)



2주차 - 마닐라 투어(Fort santiago)



Mall Of Asia에서 먹었던 한국음식(삼겹살)



Venice강을 재현해 놓은 곳-Venice Piazza



우리가 지냈던 호텔



필리핀 가면 꼭 먹어봐야하는
Bread-Emong